

너구리 HALF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2회, 동아시아사

1	①	6	③
2	⑤	7	⑤
3	④	8	⑤
4	③	9	④
5	②	10	③

1. ①

- 문제 해설 : 1979년 발생한 타이완의 가오슝 사건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가오슝 사건을 발단으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민주진보당이 결성되는 등, 타이완은 민주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 선지 해설 : ① 정답입니다. ② 여러 요인이 있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민당의 부정부패가 대표적입니다. ③ 10·26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④ 유교 등 중국의 전통문화와 자본주의 세력이 문화대혁명 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⑤ 중국이 존재하는 한 타이완이 국교를 재정상화 할 일은 없습니다.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82

2. ⑤

- 문제 해설 :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이 일본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약은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의 '평화 조약'은 일본이 주권을 인정받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 선지 해설 : ① 1955년에 수립된 베트남 공화국은 미일 안전 보장 조약과 관련이 없습니다. ②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③ 종전을 원했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정전 되었습니다. ④ 1954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입니다. ⑤ 이 조약을 계기로 미국과 남한, 일본, 타이완의 반공 동맹이 강화됩니다.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65-167

3. ④

- 문제 해설 : 근대 사상가들의 활동과 저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A)의 가토 히로유키는 자유 민권 운동을 비판하고, 1882년에 “인권신설”을 발표해 천부인권을 체계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B)의 유길준은 사회진화론을 자강의 논리로 수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서유견문” 등이 있습니다. (C)의 고토쿠 슈스이는 러일 전쟁 무렵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반전을 주장했습니다. “탈아론”을 주장한 사람은 일본 개화기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 선지 해설 : 문제 해설 참조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47, 154, 159

4. ③

- 문제 해설 : (가)는 5개의 항구를 열고, 공행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1842년 체결된 난징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트교 선교를 허용하고 외교 관리를 파견한다는 점에서 1858년 체결된 텐진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42-1858 사이에 볼 수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였군요!
- 선지 해설 : ① 양무운동은 1861년 시작됩니다. ② 메이지 유신은 1868년 추진됩니다. ③ 미국의 페리 제독은 일본이 개항하기 1년전인 1853년 일본에 방문해 수교 요청(?)을 합니다. 정확한 연도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1854년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을 기억하고, 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페리 제독의 압력이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④ 동문관은 1862년 세워집니다. 베이징에 세워져 서양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였습니다. ⑤ 제 1차 사이공 조약은 1862년 체결됩니다.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20-121, 155

5. ②

- 문제 해설 : 회답겸쇄환사를 보냈다는 점, 또는 선조 40년(..)을 통해 <보기>의 시점이 1607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 해석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으나, 회답겸쇄환사를 보낸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았습니

• 선지 해설 : 3포의 난 - 1510 / 세키가하라 전투 - 1600 / 기유약조 - 1609 / 모문룡 가도 주둔 - 1622 / 영원성 전투 - 1626 / 시마바라의 난 - 1637~1638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10-111, 114

6. ③

• 문제 해설 : 막번 체제, 산킨코타이 제도 등을 통해 ‘이 시대’가 에도 막부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웠죠? *^^*

• 선지 해설 : ① 에도 막부 시기 분라쿠(인형극), 가부키(대중 연극), 노가쿠(가면극) 등이 유행합니다. ② 유시마 성당은 1690년 에도 막부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유학 진흥을 위해 건립합니다. ③ 앗! 고증학은 명·청대의 학문이군요! 일본의 비슷해 보이는 학문은 고증학이 아니라 ‘고학’이었습니다. ④ 스키타 겐과쿠 등이 18세기 말(1774) 해체신서를 간행합니다. ⑤ 일본 국학의 대표 주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대표 저서는 “고사기전”입니다.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78, 102-103

7. ⑤

• 문제 해설 : 거란(요)의 행적을 묻는 문제였군요. 이번 회차는 문제가 좀 쉽나요?

• 선지 해설 : ① 국자감은 송대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송대에 처음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② 강동 6주를 차지한 것은 고려입니다. ③ 원이 두 차례(1274, 1281)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④ 거란은 1115년 금에 의해 멸망 당합니다. ⑤ 거란을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합니다. 1차는 서희의 외교 담판, 2차는 양규 장군의 활약, 3차는 강감찬 장군의 활약으로 거란을 격퇴했죠.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54-57

8. ⑤

• 문제 해설 : 개신의 조를 선포, 황실과 호족의 백성과 농장 폐지, 반전수수법 창설 등을 통해 <보기>는 645년 시행된 다이카 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전수수법은 다이카 개신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선지 해설 : ① 야마토 정권은 4세기에 등장합니다. ② 수는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③ 발해는 698년에 건국됩니다. ④ 응오 왕조는 939년에 세워집니다. ⑤ 현장은 7세기 초 인도로 구법을 떠난 후 645년에 당으로 돌아옵니다. 현장의 대표적 저서 “대당서역기”는 646년에 쓰여지죠. 따라서 당 태종 재위기간 (626-649) 중 있었던 일들 중 하나는 현장의 구법입니다.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26-31, 34, 45(현장)

9. ④

- 문제 해설 : 자신을 십전노인이라 칭하고, 신장을 번부로 다스리고 백련교도의 난을 진압했다는 점에서 보기의 인물은 청 황제 건륭제입니다. 건륭제의 재위 기간은 1735년부터 1796년까지이니, 18세기에 벌어진 일을 찾는 문제였군요! 재위 기간의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건륭제가 18세기 인물이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선지 해설 : ① 건륭제 재위 기간 중 베트남은 북부의 찐씨와 남부의 응우옌씨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후기 레 왕조가 존속하기는 했지만(1428-1788) 오리지널 후기 레 왕조는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죠. 참고로 베트남 남북대립의 시작은 1558년입니다. ② 덴메이 대기근은 1782년부터 1788년까지 진행되었던 일본의 대기근을 말합니다. 연도는 알 필요 없으나 18세기의 일임을 기억하세요. ③ 18세기 후반부터 청은 아편 수입의 증가로 은 값이 폭등해 심각한 경제 혼란을 맞이합니다. ④ 조선의 북벌론은 17세기 현종 재위 시기에 대두됩니다. ⑤ 18세기에는 경강상인, 내상, 송상, 만상 등의 거상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00-105, 107

10. ③

- 문제 해설 :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일으켰군요! 진(B.C 221 - B.C 206)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쉽습니다 ^^

- 선지 해설 : 주 건국 - B.C 11C / 전국 7웅의 등장 - B.C 403 / 연나라는 전국 7웅중 하나입니다. 역시 전국시대의 일이겠죠? 실제로 시기는 B.C 3C입니다. / 위만의 고조선 집권 - B.C 194 / 남비엣 멸망 - B.C 111 / 쫓잡·쫓니 자매 독립운동 - 40~43
- 연계 부분 : 수능특강 P. 16-19